
인도 표준개발기구(TSDSI) 설립

2013.11.19

□ 개요

- 인도 정보통신기술부는 지난 11월 8일, 인도 델리에서 인도 표준화기구인 TSDSI (Telecommunication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, India)의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TSDSI의 공식적인 출범을 공표

□ 주요내용

- 동 행사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및 유럽(ETSI)과 일본(ARIB, TTC)의 표준화 기구 대표들이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으며, TSDSI는 참석한 대표들과 지역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증진을 위한 협력의향서에 서명을 하였음
 - 동 협력의향서에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중국(CCSA)과 한국(TTA)의 대표들도 전자적으로 서명에 참여함
- 이는, '12년 5월 인도 정부가 승인한 「인도 新 국가통신정책 2012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, 지난 7월 2일 인도 전기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한도를 100%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통신시장 전면 개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< 인도 新 국가통신정책 2012 >

- ▶ 2017년까지 인도 통신 시장 수요의 60%(최소 45%)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, 연구, 개발, 지적재산권 등록, 제품 테스트, 표준화, 생산까지 가능한 생태계 구축, 2020년까지 80%(최소 65%) 충족 능력 확보
- ▶ WTO 규정 범위 내 인도 통신 장비 우선적 채택 사용
- ▶ 인도가 글로벌 통신 표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표준 개발 및 수립 장려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기관, 기업, 사용자들 간 협력기관 설립

□ 향후 시사점

- 인도는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통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산업을 기반으로 통신장비 및 시스템 등의 제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 개발은 물론 국내 및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
- 인도 표준화기구가 이제 첫발을 내딛긴 하였지만 인도의 통신시장은 중국과 달리 개방적이라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출 및 인도 국내 표준화 활동 참여가 예상됨
- 이를 바탕으로 향후 ITU의 표준화 활동 강화는 물론 인도 표준화기구가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및 세계표준협력회의 등 기존 표준선진국 위주의 표준화회의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